

금융그룹 CEO / 전문가  
간담회

2020. 2. 24  
금융위 16층 회의실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020. 2. 24(월) 15:00

## 금 융 위 원 회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 인사 말씀

먼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대표이사님들과 관계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그룹차원의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 되어있는  
국제적 감독규범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금융그룹감독을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그룹감독은 2000년에 도입

오늘 간담회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3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도 도입 당시  
금융그룹차원의 위험과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었으나,

제도 준수에 따른 부담 증가가  
우려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국과 업계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그룹위험이 적절히 관리되고 모니터링 되는 등  
그룹 위험관리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룹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보다 엄격한 위험관리 기준을 운영하는  
금융그룹도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동안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은  
금융그룹 대표이사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그동안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현장점검, 컨설팅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 「금융그룹감독 세미나」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주최, '20.1.29)

개선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①첫째, 그룹내 중복자본을 차감하고  
그룹위험을 고려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하는  
현행 평가체계에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방식을 개선\*하고,

\* 전이위험(동반부실위험)과 집중위험(특정분야 편중투자위험)의 평가 통합 등

위험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②둘째, 그간 금융그룹 차원의 현황은

금융당국이 자료제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그룹위험에 대한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도울 수 있도록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도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룹내 금융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되,

\* 그룹차원의 재무현황, 소유·출자구조, 위험현황 등

개별회사 공시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여  
금융회사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③셋째, 금융그룹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룹 공통의 내부통제정책, 현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운영토록 하는 등

\* 그룹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들이 참여하는 ‘그룹 내부통제협의회’ 도입

모범기준 틀 내에서 각 금융그룹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개선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모범규준 시행시기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4** 당부말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모범규준 시행 전이라도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과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